

『廣濟秘笈』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Abstract	93
머리말	95
1. 『廣濟秘笈』이 쓰여진 과정	95
1.1. 『廣濟秘笈』의 저술경위	95
1.2. 『廣濟秘笈』의 편찬취지	95
2. 『廣濟秘笈』의 저자	96
2.1.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	96
2.2. 醫師 李景華	98
2.3. 宋時烈의 門人 李景華와 醫師 李景華는 同名異人이다.	100
3. 『廣濟秘笈』에 영향을 미친 의서	101
3.1. 『廣濟秘笈』 목차	101
3.2. 『廣濟秘笈』의 인용서적	104
3.3. 『廣濟秘笈』에 영향을 미친 의서는 『東醫實鑑』, 『壽世保元』, 『本草綱目』이다.	108
4. 『廣濟秘笈』에 나온 鄉藥	109
맺음말	111

『廣濟秘笈』에 대한 書誌學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車雄碩 朴贊國

Abstract

The Study of Bibliography on 『Kwangje-bikeup』 (『廣濟秘笈』)

Through the study of 『Kwangje-bikeup』 (『廣濟秘笈』), the writer obtained results as follows

1.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wangje-bikeup』 (『廣濟秘笈』)

『Kwangje-bikeup』 (『廣濟秘笈』) is a medical book written by Lee-Kyunghwa(李景華), a medical doctor in Sungcheun(成川), Pyungan-do(平安道). It was done through the good offices of Lee-Byungmo(李秉模), who was a governor of Hamgyung-do(咸鏡道), in 1790-the 14th year of Jungjo dynasty(正祖).

2. The Author of 『Kwangje-bikeup』 (『廣濟秘笈』)

The author of 『Kwangje-bikeup』 (『廣濟秘笈』) is Lee-Kyunghwa. Some contemporary historians mistake him for Lee-Kyunghwa who joined the school of Song-siyul. Yet, they are two different people with the same name.

Lee-Kyunghwa, the writer of 『Kwangje-bikeup』 (『廣濟秘笈』) was born in Sungcheun, Pyungan-do, in the year of 1720. At first he studied Confucianism in order to enter government services. Later he passed the Jinsa exam which was the first exam to become a qualified government official. However, after he was disillusioned in the discrimination against northwestern people, he chose to study medicine and put his effort and time on medicine. Gradually he won a great reputation as a medical doctor and came to write 『Kwangje-bikeup』 (『廣濟秘笈』) at the request of Lee-Byungmo in 1790

3. Medical books affecting 『Kwangje-bikeup』 (『廣濟秘笈』)

This book is influenced by 『Donggeui-bogam』 (『東醫寶鑑』), 『Suse-bowen』 (『壽世保元』), 『Boncho-gangmok』 (『本草綱目』), etc.

* 석사학위논문

4. Domestic Herbs in 『Kwangje-bikeup』(『廣濟秘笈』)

Lee-Kyunghwa seperately recorded clinical cases with domestic herbs in the last volume, which was associated with the effort to have been made for domestic herbs, since the middle era of Koryo



머리말

필자가 고찰하고자 하는 『廣濟秘笈』은 朝鮮 正祖14년(1790년)에 평안도 의사인 李景華에 의해 쓰여진 方書이다.

『廣濟秘笈』에 관하여서는 『廣濟秘笈』의 跋文, 序文, 目次, 凡例의 내용을 발췌하여 『廣濟秘笈』의 성립과 구성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한 것이 있는데, 이는 書誌의 간략한 개괄에 그치고 있다.¹⁾²⁾ 또한 북한에서 1963년에 全卷이 번역되어 출판되었는데 현재 남한의 맞춤법에 따라 다시 교정하여 출판한 것이 있다.³⁾ 그러나 이는 내용의 번역에 치중하였으며, 편제도 현대 임상에 응용하기 편하게 바꾼 것으로 의사학적 가치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廣濟秘笈』의 書誌學的인 내용을 보충하여 本書의 醫史學的인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로, 『廣濟秘笈』의 目次와 引用書籍을 고찰하여 본서가 어떤 醫書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둘째로, 『廣濟秘笈』의 저자에 대하여 대부분 宋時烈의 門人이었으며 肅宗때에 활동한 李景華로 보고 있다. 그러나 『廣濟秘笈』의 저자는 正祖때의 李景華로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와는 同名異人이다. 즉 『廣濟秘笈』의 저자에 대하여 世間에는 잘못 알려져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한 고찰을 통해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

1. 『廣濟秘笈』이 쓰여진 과정

1.1. 『廣濟秘笈』의 저술경위

『廣濟秘笈』은 李景華가 지은 것으로, 그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李秉模의 주선으로 正祖14년(1790년)에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쓴 의학서적이다.

1789년 3월 李秉模는 咸鏡道 觀察使로 부임해온 뒤 그 지방의 풍토가 좋지않아 질병이 많은데다가 사람들마저 藥을 믿지 않고 무당들을 믿어 그 피해가 심각함을 안타까워했다.⁵⁾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 좋은 醫書를 쓰게하여 백성을 구할 작정이었으나, 그러지 못하던 중 윤포암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李景華라는 名醫를 알게 되었다.⁶⁾ 이후 그는 李景華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의서를 쓰게자하는 뜻을 전달하였는데 李景華가 흔쾌히 승낙하여⁷⁾ 『廣濟秘笈』이 지어지게 되었다.

李景華의 서문에 의하면 『廣濟秘笈』은 3개월만에 쓰여졌다고⁸⁾ 되어있다. 책이 완성된 때, 즉 李景華의 발문이 지어진 때가 1790년 6월이므로 대략 그 해 4월부터 쓴 것이 된다.

1.2. 『廣濟秘笈』의 편찬취지

『廣濟秘笈』의 범례에 보면 책의 편찬취지를 알 수 있으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책의 첫머리에 五中, 諸厥, 五絶, 五發을 든 것은 전적으로 위급한 병을 우선 치료하고자 함이다.⁹⁾

4) 李景華, 廣濟秘笈, 한국의화대계16권; 서울, 여강출판사, p. 4 '聖上十四年 庚戌 仲夏 下澣 德水 李秉模序'

p. 534 '聖上十四年 歲庚戌 季夏 進士 李景華跋'

5) 李景華, 上揭書 p3 "...歲已酉 余出按關北 其地 右海左嶺 風瘴交觸 民多疾病 其俗信巫而不信藥..."

6) 李景華, 上揭書 p3 "...若得一良醫 著方家喻戶傳則其利博矣 但恨不得其人 適閱尹圃巖贈李景華詩曰 肘後神方向誰問 成都隱士贈於醫 余遂紹介而致之..."

7) 李景華, 上揭書 p4. "...告以余意 樂爲之..."

8) 李景華, 上揭書 p4 "...三閱月而成書..."

9) 李景華, 上揭書, pp. 30-31 "是書 以五中諸厥五絶五發爲首者

1)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2, p. 358

2) 金信根, 韓醫藥書攷,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pp. 428-434

3) 李景華, 광제비급, 국역동의고전총서 4권, 서울, 여강출판사, 1994년

- 여러의서들은 편집된 것이 복잡하고 方文들도 많아 평소에 많이 읽어두지 않으면 병에 닥쳤을 때 미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처방을 찾아 보기 쉽게 하였다¹⁰⁾.

- 궁벽한 시골에는 약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本草綱目』과 『壽世保元』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 49종을 골랐으며 주치와 복용법 등을 자세히 적어 궁벽한 곳에 촌부라도 구별하여 쓸 수 있게 하였으며 위급한 질병을 구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

즉 저자의 설명처럼 『廣濟秘笈』은 궁촌벽지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위급한 질병을 우선으로 구성하였으며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번잡한 의학이론은 가급적 피하였다. 그러나 증상의 나열에 있어서 변증의 요점이 될만한 중요한 경우는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2. 『廣濟秘笈』의 저자

『廣濟秘笈』의 저자는 李景華이다. 李景華에 관해서는 한국인명대사전¹²⁾, 한의학대사전¹³⁾,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¹⁴⁾, 한국사대사전¹⁵⁾ 등에 간단

한 약력이 나와있으며, 모두 李景華가 1629년(인조7년)에 출생하여 1706년(숙종32년)에 작고하였다고 하였다. 이하 내용은大同小異하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는 汝夏이며 호는 風溪이고 본관은 振威이다. 평안도 成川사람이며 宋時烈의 문인이고 침구에 능했다(醫術에 밝았다). 1660년 현종 1년에 성균관 生員試에 합격하였다. 아버지는 佐郎벼슬을 지냈다. 유고로는 『楓溪集』과 『廣濟秘笈』이 있다.’

위의 내용에 의하면 李景華는 仁祖7년에 명문집안에서 태어나 顯宗과 肅宗때에 활동하였던 인물로 肅宗32년에 작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當代의 名人이었던 宋時烈(宣祖40年~肅宗15年, 號 尤菴)의 門下에서 受學하였으며, 정계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 醫術에도 뛰어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廣濟秘笈』이 지어진 연대가 1790년이므로 우선 生沒年代와 저작시기가 맞지 않고, 『楓溪集』, 『肅宗實錄』, 『振威李氏世譜』, 『廣濟秘笈』 등 그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볼 때에도 세간에 알려진 사항은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즉 宋時烈의 門人이었으며 肅宗32년에 작고한 李景華와 『廣濟秘笈』을 쓰고 醫術에 능한 李景華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2.1.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에 대한 기록은 『楓溪集』과 『振威李氏世譜』 및 『肅宗實錄』에 나와 있다.

2.1.1. 『楓溪集』에 나온 李景華에 대한 기록

『楓溪集』은 李景華가 생존해 있을 때 썼던 글과 李景華의 주변인들이 그에 관해 쓴 글을 그의 6대후손인 이동규가 모아서 1868년에 간행한 문집이다. 『楓溪集』에 있는 李景華의 글은 詩와 上訴文

專是救急之意也 巷間之人 卒遇此等急病 蒼黃束手 豈不憫矜 復以七竅之病 咽喉之疾 續編爲上卷”

10) 李景華, 上揭書, p. 31 “凡醫書編秩浩繁 方文汗漫 非平日熟讀者 臨急檢 方多有未及之歎 千金方序云 方才檢 得病已不救 徵其言 分類立方於考閱云”
 11) 李景華, 上揭書, p. 31 “窮鄉僻邑 無藥 救急 考閱綱目本草 及保元諸方 以人家尋常 易得之料 四拾九種 書名謄釋主治服法 并并舉俱 使村人鄙夫 臨病 判用以爲備急之一助云”
 12) 이희승의 5인 공저, 한국인명대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1972
 13) 한의학고전연구소, 한의학대사전 (한국의사문헌편), 서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94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웅진출판사, 1994
 15) 이홍식, 한국사대사전, 서울, 교육재단, 1994

들이 대부분이며, 그 내용은 李耳(中宗31年~宣祖17年, 號 栗谷)와 宋時烈, 金長生(明宗3年~仁祖9年, 號 沙溪)등 자신의 계보스승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는 상소문들이다.

『楓溪集』에 나오는 年譜를 살펴보면, 그는 仁祖 7年(1629년)에 태어났고 20세되던 해(仁祖26年)에 宋時烈的 門下로 들어가 수학하였으며 32세(顯宗 1年)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肅宗 8년 5월 5일에 같은 고을의 儒生들을 모아 전실이 은폐되고 있음을 상소하였고, 肅宗 11년 4월 10일에는 삼도의 여러사람들을 모아 상소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에는 李耳과 金長生의 옳은 행실을 밝히는 상소를 올렸으며 肅宗 28년에는 金長生을 문묘에 종사토록하는 상소를 올렸다. 78세되던 肅宗 32년(1706년)에 愛日堂에서 작고하였는데 그때 주위의 문사들이 쓴 挽詞가 80여장이나 되었다.¹⁶⁾

그리고 李世淵이 쓴 事實¹⁷⁾에 보면 李景華의 고향은 한국인명대사전 등에서 現代史家들이 밝히고 있는 成川이 아니라 沃川으로 되어있다.¹⁸⁾

2.1.2. 『振威李氏世譜』에 나온 李景華에 대한 기록

十七世孫

子概

字而濟

萬曆甲申生 階工曹佐郎 不任 庚子十二月十五日卒

尤菴宋文正 有挽言行事蹟 在尤菴文集詳在行狀 …

16) 『楓溪集』, 年譜, “仁祖己巳生 … 年至二十戊子 受業於尤菴宋先生 … 顯廟庚子 登科 年至三十二 … 顯廟年至五十四壬戌五月五日 重峯嶺齋兩先生書阮改額事 率一邑諸生上疏蒙允 年至五十七乙丑四月十日 栗谷尤菴兩先生下明事 率三道僉員封章八啓 是歲十月 栗谷沙溪下明事 率四方多士叫闕蒙允 年至七十四 壬午十月二十五日 沙溪金先生 從享事 率八路會儒伏○蒙允 年至七十八 丙戌八月八日 考終于愛日堂 名人文士有挽言八十餘章”

17) 풍계집의 부록에 있는 글로써 이경화의 일생을 간략히 적은 글이다. 庚申년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860년으로 추정된다.

18) 『楓溪集』, 「事實」, “顯廟之際 沃川有以太學生 出入尤翁門下……”

十八世孫

子景華

字汝夏 號風溪

崇祖己巳生 顯廟元年庚子生員 受業於尤菴宋先生

丙戌八月八日卒 壽七十八 當世名人文士有挽八十餘章 …

李景華는 振威李氏의 18대손이다. 己巳年生(1629년)이며 顯宗1년에 生員이 되었고 宋時烈에게서 수학하였다. 丙戌年(1706년)에 78세의 나이로 작고하였으며 당시 명인과 문사들이 그를 기려 쓴 挽詞가 팔십여장이나 되었다.

2.1.3. 『肅宗實錄』에 나온 李景華에 대한 기록

조선왕조실록에서 李景華에 관한 기록은 『肅宗實錄』에 5건이 있다. 그중의 1건은 肅宗44년의 기록으로 상원군수 李景華를 승진시킨다는 내용인데¹⁹⁾ 李景華는 肅宗32년에 작고하였으며, 『楓溪集』이나 그의 세보에 군수를 지낸 경력이 보이지 않으므로 상원군수를 지낸 李景華는 다른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 1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모두 『楓溪集』 및 세보의 기록과 어긋남이 없다. 다음은 『肅宗實錄』에서 李景華에 관한 기록은 발췌한 것이다.

肅宗 8년 5월 계축일

‘…공홍도(公洪道)의 생원(生員) 李景華 등이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과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문묘(文廟)에 종사(從祀)하도록 청하였다.’²⁰⁾

19) 肅宗實錄：肅宗 44년 9월 辛丑일

‘定州牧使 柳貞章 金川郡守 李鼎佐 祥原郡守 李景華 端川郡守 金潤海 明川府使 申慶汝 文川郡守 金器之 等 命階敘’ -정주 목사(定州牧使) 유정장(柳貞章)·금천 군수(金川郡守) 이정좌(李鼎佐)·상원 군수(祥原郡守) 이경화(李景華)·단천 군수(端川郡守) 김윤해(金潤海)·명천 부사(明川府使) 신경여(申慶汝)·문천 군수(文川郡守) 김기지(金器之) 등은 승진시켜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肅宗 11년 4월 무술일

‘...유생(儒生) 李景華 등이 상소하기를...’²¹⁾

肅宗 13년 3월 을미일

‘...李景華(李景華)는 또한 따라서 사실(辭說)을 날조하여 소장(奏章)에다 올리고 있는데, 李景華 역시 송시열의 문도(門徒)입니다...’²²⁾

肅宗 13년 4월 신유일

‘...송시열이 목천 사람들은 호향(互鄕)으로 배치하면서도 李景華 등의 통문과 상소의 말은 배척하지 않았다...’²³⁾

이상 필자는 『楓溪集』과 『肅宗實錄』 그리고 그의 세보를 고찰해보았다. 이 세가지 문헌은 서로의 내용에 어긋남이 없으며, 모두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를 가리키고 있다. 또한 위 세가지 문헌에는 그가 醫術에 능했다거나 『廣濟秘笈』을 지었다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2. 醫師 李景華

醫師 李景華에 관한 기록은 『廣濟秘笈』에 나와 있다. 그러나 本書는 醫書이므로 李景華의 행적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단지 그의 행적을 나타내주는 몇가지 단서를 중심으로 그의 生沒年代와 활동내역을 추정해보기로 하겠다.

李景華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廣濟秘笈』 기록시기와 당시 전후정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李景華는 의사로서 현지에 있을 당시 함경도 관찰사의 부탁으로 『廣濟秘笈』을 저술하였

는데 서문과 발문에서 모두 그 때를 ‘聖上十四年 庚戌年’이라고 하였다.²⁴⁾ 庚戌년이며 재위 14년인 해는 정조14년이며 이병모가 함경도에서 관찰사를 지낸 때도 이때이다.²⁵⁾

本書가 쓰여질 당시의 전후정황을 서문과 발문의 내용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廣濟秘笈, 序文

‘...다침 윤포암이 李景華에게 보낸 시에서 ‘소매속에 넣고다니면서 쉽게 쓸 수 있는 처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성도에 사는 은사 의사인척하며 숨어있네’ 라고 되어 있길래, 이에 소개를 받아 오게하여 내 뜻을 전달하니 흔쾌히 승낙하였다...’²⁶⁾

廣濟秘笈, 跋文

‘...나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서 세상을 구하는 처방을 써줄 것을 부탁하기에 내가 흔쾌히 수락하였다...’²⁷⁾

그리고 跋文에서 李景華는 李秉模를 ‘靜脩 李公’이라고 부르는데²⁸⁾ 靜脩는 李秉模의 호이다.

이와같이 『廣濟秘笈』은 正祖14년에 쓰여졌는데, 이에 대해 서문과 발문의 기록시기가 같고, 李景華가 李秉模를 만나서 의서를 쓰게 된 경위가 일치하며, 그리고 李景華에게 의서를 쓰도록 부탁한 李

20) 『肅宗實錄』 8년 5월 계축일
‘...公洪道 生員 李景華等 請以 文元公金長生 文正公宋俊吉 從祀文廟...’
21) 『肅宗實錄』 11년 4월 무술일
22) 『肅宗實錄』 13년 3월 을미일
‘...李景華則又從而捏造辭說 謗之跋章 景華亦時烈門徒也...’
23) 『肅宗實錄』 肅宗 13년 4월 신유일
‘...又以時烈斥木川人以互鄕而不斥李景華等通文與上疏語...’

24) 李景華, 上揭書, p. 4 ‘聖上十四年 庚戌 仲夏 下澣 德水 李秉模序’, p. 534 ‘聖上十四年 歲庚戌 季夏 進士 李景華跋’
25) 李秉模는 1742년(영조 18년)에 태어나서 1806년(순조 4년)에 작고한 文臣이다. 자는 彝則이며 호는 靜修齋이다. 본관은 德水이다. 1773년에 진사가 되었고 그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합격한 뒤 후에 영의정까지 지낸 인물로 정조 13년 3월 부터 이듬해 7월 예조판서에 임명될때까지 약 8개월간을 함경도 관찰사로 재직하였다.
26) 李景華, 上揭書, p. 4 ‘...適閱尹圃齋贈李景華詩曰 肘後神方 向誰問 成都隱士 隱於醫 余遂紹介而致之...告以余意 樂爲之...’
27) 李景華, 上揭書, pp. 533, ‘...召致余子舍要輯救濟之方...余乃樂爲之.’
28) 李景華, 上揭書, p. 533

秉模에 대한 이력도 『廣濟秘笈』의 내용과 어긋남이 없으므로 『廣濟秘笈』의 서문과 발문에 기록된 저술연대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즉 『廣濟秘笈』을 지은 李景華는 正祖때에 실존하였던 인물로本書는 李景華가 생전에 직접 기록한 것이다.

李景華가 태어나서 활동하던 곳에 대한 기록은 서문과 발문에 '成都'²⁹⁾, '西土'³⁰⁾라고만 되어있다. 함경도를 北關(關北)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西土는 關西 즉 평안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李景華가 자신이 있는 곳을 '北方陰崖之處'³¹⁾라고 표현하였는데 발문의 전후내용을 보아 정치적으로 소외된 곳을 뜻하므로 평안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成都'라는 지명에 대해서 『廣濟秘笈』, 북한번역본에는 '성천'이라고 하고 있으며, 평안도에서 '成川'이외에 유사한 지명이 없으므로 '성천(成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의 生沒年代를 추정해보면 『廣濟秘笈』을 쓴 때(정조14년-1790년)가 그가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의학에 뜻을 둔지 오십여년이라고 하였다.³²⁾ 그리고 발문의 마지막에 李景華는 자신을 進士라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의학에 뜻을 두기 이전에 進士試에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³³⁾ 그래서 그가 벼슬할 생각을 그만 둔 때를 대략 20세전후라고 한다면 李景華는 1720년대를 전후해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작고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노산 이은상의 鷺山文選에 흥미있는 기록이 있어 참고해본다.

“...純祖時에는 '成川の 李景華야 네 날 살려라'란 童謠가 있었으니, 이는 일찍 李景華란 成川 名醫가 있어 여러 가지 事實로 惑世하는 자이라고 嫌疑를 받아 死刑을 당하였던바, 얼마 후에 순조의 세자 효명세자가 병석에 눕자, 天下의 良醫를 다 불러들여도 快差하지 못하고, 마침내 순조 30년(1830년)에 세자가 죽고 말았으니, 이 동요는 무죄한 名醫를 惑世誣民하는 자로 몰아 극형에 처한 그 無理를 풍자한 것이다. 34)

여기에서 노산은 李景華에 관한 민요가 단지 口碑라고만 밝히고 있어서 위의 내용은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廣濟秘笈』에 나타난 成都는 평안도 成川이 분명하며, 李景華는 서울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名醫였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당하였다. 그리고 효명세자가 1830에 병사하였으므로 李景華는 1830년 이전에 작고한 것이 된다.

다음은 『廣濟秘笈』 서문에서 함경도 관찰사인 李秉模가 李景華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인데 李景華의 사람됨에 관한 것이다.

“...푸른 얼굴에 머리는 흰데 눈에는 정기가 있었다. 자기가 의사라고도 하지 않았으나 역시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다. 경사백가에 능통하며 국토와 국방, 지리, 충신의 의로움과 열부의 절개 등에 뜻을 두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자신의 재주를 펴지 못하여 의사라는 신분으로 숨어사는 것 같았으며, 포암의 시³⁵⁾가 과연 그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³⁶⁾

29) 李景華, 上揭書, p3 “尹圃巖 贈李景華 詩曰 肘後神方向誰問 成都隱士隱於醫” - 윤포암이 이경화에게 보낸 시에 이르기를 '주후의 신방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성도에 사는 은사에게 물을 것이다. 그는 의사인척하며 지낸다. -

30) 李景華, 上揭書, p533 “... 生於西土 ...”

31) 李景華, 上揭書, p. 534

32) 李景華, 上揭書, p“... 一意蒼扁 于今 五十有餘年...”

33) 『司馬榜目』에는 李景華가 進士試에 합격한 기록은 없다. 아마 지방진사시(鄉試)에 합격한 뒤 스스로를 進士라고 칭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34) 이은상, 노산문선, 영창서관, p500

35) 광재비급 서문에 나오는 것으로 윤포암이 이경화에게 보냈다는 시를 말한다. 이 시를 윤포암은 이병모에게도 보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병모는 이경화를 만나게 되었다. (李景華, 上揭書 p3 “尹圃巖贈李景華詩曰 肘後神方向誰問 成都隱士隱於醫” --)

36) 李景華, 上揭書 pp3, 4 “...蒼顏白髮 雙瞳炯然 未嘗以醫自處 亦不避醫名 經史百家無不研究 意於山河關防道里險夷忠臣烈婦 綱常大節 著志立傳 以見其意 蓋無所展其才而 托醫爲隱者也 圃巖之詩 果不誣矣...”

한편 『廣濟秘笈』 발문의 내용을 보면 李景華의 정치권력에 대해 피해의식을 느낄수 있는 대목이 있다.

‘...스스로 탄식하기를 우리 선배들이 문과로 나가 보아 우승³⁷⁾이고 무과로 나가보아 집극³⁸⁾정도인데 만약 내가 과거에 급제할들 평안도에 태어났으므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과거볼 생각을 포기하고 范仲淹³⁹⁾이 원했던 마음을 본받고 朱丹溪가 벼슬을 미루던 마음을 따라, 뜻을 倉公과 扁鵲에 둔 지 오십여년이 지났다...’⁴⁰⁾

즉 발문에서 李景華는 의학의 배우게 된 계기가 관직에 대한 지역차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고, 그 이후 벼슬할 생각을 그만 두었으며 고향에서 줄곧 의사생활을 하였다.

- 37) 조선시대 관직중 郵조이라는 관직은 없다. 다만 외관직(지방 관직을 말함)으로 從九品에 해당하는 驛조이 있는데 經國大典 註解篇에 보면 徒步로 공문을 전달하는 것을 郵라하고 馬便으로 공문을 전달하는 것은 驛이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경국대전, 주해편, p. 41) 우승과 역승은 같은 類의 관직으로 생각된다. 한편 同書에서 '역무를 관장하는 벼슬은 察訪과 驛조이 있는데 察訪은 從六品이며 역승은 從九品의 관직이다'라고 하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上揭書, p. 582). 종구품의 벼슬은 가장 말단직이다. 이 경화가 말단직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표현으로 보인다.
- 38) 조선시대 관직중 執戟이라는 관직은 없다. 辭源에서 집극은 진한시대의 관직이며 侍衛官이라고 하였고, 손에 戟을 잡은 것으로 이름하였다고 하였으며, 史記 魏世家에 '... 臣事項王 官不過郎中 位不過執戟...'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郵조처럼 말단직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 39) 범중엄 : 송대의 재상으로 유학을 공부한 의가들에게 널리 알려진 '不爲良相 當爲良醫'-좋은 재상이 되지 못할 바에는 좋은 의사가 되어라-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 이야기는 송대 吳曾의 能改齋漫錄 13권에 나온다. (陶御風 等篇, 歷代筆記醫事別錄, 천진과학기술출판사, 천진, pp557-558) 이 말은 당시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서 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다수 의료에 종사하였다. (천진중의학원, 中醫學解難, 천진과학기술출판사, 천진, p100) 허숙미, 장원소, 왕양 등의 의가들이, 원래는 유학을 공부하였으나 후에 의학으로 전업한 경우이다.
- 40) 李景華, 上揭書, p. 533 "...自歎曰 先輩 文不過郵丞 武不過執戟 使決科 生於西土 釋民利物 非可望也 遂棄舉子業 體范公願爲之心 學丹溪猶仕之訓 一意倉扁于今五十有餘年..."

이상 『廣濟秘笈』을 통해서 알아본 李景華는 평안도사람이며 원래는 벼슬을 할 생각이었으나 관직에 대한 지역차별이 심한 것에 대해 회의를 품고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고향에서 줄곧 의사생활을 하였다. 나중에는 名醫로 이름이 알려져 1790년에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李秉模를 만나, 의서를 쓸 것은 권유받고 『廣濟秘笈』을 쓰게 되었으며, 그 때는 이미 그의 의사경력이 50년이 넘은 때였다.

2.3. 宋時烈的 門人 李景華와 醫師 李景華는 同名異人이다.

『楓溪集』과 『肅宗實錄』, 『振威李氏世譜』를 통하여 알아본 李景華는 宋時烈的 門人이며 실존하였던 인물로 1629년(인조7년)에 출생하여 1706년(숙종32년)에 작고한 충청도 옥천사람이며 성균관생원에 합격한 뒤 정계의 일에 깊이 관여하였고 아버지 政6품의 벼슬까지 지냈다. 그리고 『楓溪集』 등에는 그가 醫術에 능했다거나 『廣濟秘笈』을 지었다는 내용은 없다.

그리고 『廣濟秘笈』을 통하여 알아본 李景華는 평안도 사람으로 生沒年代는 정확하지 않으나 1720년을 전후해서 출생하였으며 醫術에 종사한지 50여년만인 1790년에 『廣濟秘笈』을 저술하였다. 한편 『廣濟秘笈』에는 李景華가 정계의 일에 관여했다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원래는 관직에 나가려하였으나 지역차별에 회의를 품고 의학에 뜻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 두가지 기록은 우선 生沒年代와 태어난 곳이 다르며, 한편에서는 當代의 명인이던 宋時烈的 門人이었으며, 정계의 일에 깊이 관여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직에 회의를 품고 의학에 전념하였다고 하였다. 『楓溪集』과 『廣濟秘笈』의 기록이 주변정황이나 다른 기록과 어긋남이 없으므로 『楓溪集』의 李景華와 『廣濟秘笈』의 李景華는 同名異人의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대사가들의 李景華에 대한 기록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사람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즉 李景華의 고향이 成川이라는 것과 醫術에 능했다는 것 그리고 『廣濟秘笈』이 그의 저작이라는 것은 正祖때의 평안도지사 李景華를 이른 말이며, 그 외의 生沒年代와, 宋時烈의 門人이며 顯宗때에 生員에 합격한 것 등 나머지의 기록은 肅宗때에 활동한 宋時烈의 門人 李景華를 가리킨 것이다.

그리고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가 醫術에 능했다는 기록은 단지 의서인 『廣濟秘笈』을 그의 저작으로 보았으므로, 鍼灸나 醫術에 능했을 것이라고 현대사가들이 추측한 것으로 여겨진다.

3. 『廣濟秘笈』에 영향을 미친 의서

본 단원에서는 『廣濟秘笈』이 어떤 醫書를 바탕으로 저술되었는지에 대하여 目次와 引用書籍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3.1. 『廣濟秘笈』 목차

『廣濟秘笈』은 책의 맨앞에 序文, 目次, 引據諸書, 凡例, 釋音意가 있고 총 4권으로 되어있으며 4권의 말미에 跋文이 있다. 1권은 諸中, 諸厥, 五絶, 七竅, 五發, 癰疽, 諸傷, 咽喉 등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주로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중심으로 되어 있다. 2권은 雜病 1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嘔吐, 泄瀉, 消渴 등 內科疾患에 관한 것이다. 3권은 婦人門, 孕婦雜病, 產後諸病, (婦人)雜病⁴¹⁾, 小兒門, 痘疹, 斑疹의 7개 항목이며, 그 내용

은 婦人科와 小兒科 및 천연두와 홍역에 관한 내용이다. 4권은 국산약재 50종을 추려 각각 치험례를 기록한 것이다.

廣濟秘笈의 목차

1권

諸中 : 中風, 牙關緊急 등 29항목

諸厥 : 痰厥, 食厥 등 17항목

五絶 : 自縊, 墮壓 등 24항목

七竅 : 百虫入耳, 水銀入耳 등 71항목

五發 : 腦發, 鬢發 등 5항목

癰疽 : 癰疽欲發, 淺深輕重有膿無膿辨 등 75항목

諸傷 : 虎咬, 蛇咬 등 48항목

咽喉 : 急喉閉, 熱喉閉 등 39항목

2권

雜病 : 補益, 反胃 등 241항목

3권

婦人 : 調經, 婦女不調 등 31항목

孕婦雜病 : 胎上衝心, 孕婦熱病 등 21항목

產後諸病 : 產後發熱, 熱入血室 등 46항목

雜病(婦人雜病) : 赤白帶下, 虛寒帶下 등 27항목

小兒 : 小兒難醫, 斷臍帶 등 64항목

痘疹 : 太古無痘, 豫防 등 31항목

斑疹 : 斑疹證候, 痰盛喘促 등 6항목

4권

鄉藥單方治驗

『廣濟秘笈』의 목차는 救急疾患, 內傷雜病, 婦人小兒病, 單方治驗의 순서로 되어있다. 역대 漢方醫書의 목차를 살펴보면 外感病, 內傷雜病, 婦人小兒病, 其他疾病의 순으로 목차가 되어있는 예가 많다. 대개 綜合醫書들이 이러한 목차를 하고 있으며 『廣濟秘笈』도 종합의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크게 보면 전통적인 목차를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

41) 목차에는 雜病으로만 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볼 때 婦人雜病이라고 보아야한다. '婦人'이라는 글자가 생략된 것으로 본다.

다. 그러나 『廣濟秘笈』의 목차는 外感病과 危急疾患⁴²⁾을 같이 묶어 책의 맨앞에 두는 등, 독창적인 면이 있으며 세부적인 면을 살펴볼 때 기존의 몇몇 의서를 참고한 흔적이 여러군데 보인다. 이에 그 단서들을 분류하여 本書가 어떤 의서를 저본으로 하여 저술되었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3.1.1. 『廣濟秘笈』과 『壽世保元』과의 관계(목차를 중심으로)

『壽世保元』은 明代 龔廷賢의 저서로 1615년에 저어졌으며 『醫學正傳』(1515年, 虞搏撰), 『醫學入門』(1575年, 李梴撰)과 더불어 金元時代의 의학 성과를 계승한 명대의 대표적인 綜合醫書이다. 『壽世保元』은 목차에 十干의 명칭을 붙였으며 10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1권은 總論에 관한 내용이며 2권은 中風, 傷寒, 中暑, 中寒, 溫疫 등의 질병의 다루고 있다. 3권부터 6권까지는 內科雜病에 관한 내용이고 7권은 婦人病 8권은 小兒疾患 痘疹, 麻疹에 관한 내용이다. 9권은 外科疾患이며 10권은 單方, 灸法, 五絕, 中毒 등 기타질병에 관한 내용이다.

『壽世保元』의 편제를 참고하였다는 구체적인 단서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 『壽世保元』에서 各論의 처음인 2권은 中風, 中寒, 中暑 등 위급한 질병을 外感病과 묶어서 다루고 있으며, 『廣濟秘笈』에서도 1권의 첫 부분은 諸中, 諸厥, 五絕 등의 위급한 질병 및 外感病을 다루고 있다. 『壽世保元』에서는 10권에서 기타질환으로 金瘡, 齒傷, 中毒, 骨腫, 邪祟, 五絕, 井塚, 蠱毒, 救荒辟穀, 灸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廣濟秘笈』에서는 이 중 中毒, 金瘡, 五絕 등을 구급질환으로

분류하여 1권에서 中風, 中寒 등과 같이 취급하였다.

- ㉡ 『廣濟秘笈』의 1권에 '五絕'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壽世保元』의 10권에도 '五絕'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는 『廣濟秘笈』 1권의 편찬 취지가 위급질환을 다루는 것이므로 『壽世保元』의 '五絕'이라는 항목을 앞으로 가져온 것이다. 『東醫實鑑』에서는 五絕에 관한 내용을 잡병구급문중의 '救自縊死'라는 항목말미에 간단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친다.
- ㉢ 『廣濟秘笈』에서는 2권에 모든 잡병을 다루고 있는데 맨처음의 항목이 '補益'이다. 『壽世保元』의 잡병에 관한 내용은 3권과 4권, 5권, 6권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4권의 첫항목이 '補益'이다.
- ㉣ 『廣濟秘笈』 2권 잡병편에서는 老人에 관하여 따로 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壽世保元』의 4권에서도 '老人'이라는 항목을 따로 두고 있다.
- ㉤ 『壽世保元』의 마지막 10권에 '單方雜治'라는 항목이 있는데 단방에 대한 치험례를 기록한 것이다. 『廣濟秘笈』에서도 마지막 4권의 내용은 단방에 대한 치험례를 기록하고 있다. '~治驗'이라는 표현까지도 동일하며 『壽世保元』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에 의하면, 『廣濟秘笈』의 목차대강은 救急, 雜病, 婦人, 小兒, 痘疹, 單方治驗 순으로 『壽世保元』 各論의 목차순과 동일하다. 그리고 다른 의서에서는 드문 항목이 두 의서에서 목차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으로 볼 때 『廣濟秘笈』의 목차의 대강은 『壽世保元』을 참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3.1.2. 『廣濟秘笈』과 『東醫實鑑』과의 관계(목

42) 위급질환이라 함은 食中毒, 金瘡, 蛇咬 등을 말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른 의서들에서는 其他雜病으로 분류되어 책의 뒷부분에 나온다.

차를 중심으로)

『東醫寶鑑』은 조선조 허준의 저서로 1613년에 간행된 의서이다. 『東醫寶鑑』의 목차는 內景과 外形, 雜病, 婦人, 小兒 등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內景과 外形을 책의 머리에 둔 것과 外感病을 雜病을 설명하는 부분에 포함시킨 것 등 일반적인 의서와는 다른 목차순을 따르고 있다. 즉 『東醫寶鑑』은 '內景'과 '外形'이라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질병을 우선 분류하고 설명하는 데에 전체적인 분량의 약 1/3을 할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나머지 질병들을 雜病, 婦人小兒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廣濟秘笈』의 목차와는 다르다. 따라서 『廣濟秘笈』의 목차의 틀을 『東醫寶鑑』에서 참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外感病을 설명하는데도 『東醫寶鑑』이 원인에 따라 風, 寒, 暑, 濕, 燥, 火로 나누어 비교적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廣濟秘笈』은 中風, 牙關緊急, 半身不遂, 中寒, 中暑, 中暈 등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을 중심으로 나열하고 있는 등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나 『東醫寶鑑』과 『廣濟秘笈』의 목차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틀보다는 좀더 세부적인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록 전체적인 틀은 『壽世保元』을 참고했다하더라도, 세부항목을 정하는 데는 『東醫寶鑑』을 직접 참조했다는 단서들이 여러군데 보인다. 다음은 그 몇가지 예이다.

- ㉠ 『東醫寶鑑』의 痘疹에 관한 첫항목은 '痘癘疹三證專由胎毒'이며 그 내용의 첫머리는 '太古無痘疹...'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廣濟秘笈』의 痘疹에 관한 첫항목은 '太古無痘'인데 이것은 李景華가 『東醫寶鑑』을 보고 제목을 붙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壽世保元』의 두진에 대한 첫항목은 痘瘡이며 '夫痘瘡者乃胎毒之所致也...'로 시작하고 있다.

- ㉡ 『東醫寶鑑』의 小兒에 관한 내용다음에 痘疹, 麻疹에 관한 내용이 나오며, 『廣濟秘笈』에서도 소아과질환 다음에 두진과 마진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壽世保元』에서도 이와같은 형식을 하고 있지만 그 세부항목을 보면 『東醫寶鑑』을 참조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	『廣濟秘笈』	『壽世保元』
痘癘疹三證專由胎毒	太古無痘	(痘瘡)
稀痘方		(視痘顏色輕重之法)
痘瘡預防法	豫防	(痘疹辨疑賦)
辨痘證	傷寒痘瘡傷食 (飲食)	(神斷秘訣) (預解胎毒免痘)
痘瘡亦時氣之一端		(看耳後筋紋斷法)
痘有五般證		(紙燃照法)
痘瘡諸證		
痘瘡治法		
痘瘡日限		
發熱三朝	發熱三日	初期發熱治法
發熱時吉凶證		
出痘三朝	出痘三日	出痘治法
出痘時吉凶證	出痘吉凶	(看痘不治法)
起脹三朝	起脹者出痘終日	(看痘輕重歌)
起脹時吉凶證	起脹吉凶	起脹治法
貫膿三朝	貫膿三日	貫膿治法
貫膿時吉凶證	貫膿吉凶	
收靨三朝	收靨三日	收靨治法
收靨時吉凶證	收靨吉凶	
飲食		
黑陷	黑陷	
護眼		
痘後雜病		痘後餘毒
痘後諸疾		
痘後腎膜	眼胞久合生膜	
點法		
痘後癰腫	痘後癰腫	
痘後痢疾		
附孕婦痘瘡		

()안의 내용은 옆비교항목과 내용이나 제목이 다른 것

3.1.3. 『廣濟秘笈』과 『本草綱目』과의 관계(목차를 중심으로)

『本草綱目』은 총52권의 방대한 서적으로 1590년에 간행되었다. 明代 李時珍의 저술로 중국 漢代 『神農本草經』 이래의 本草學에 대한 성과를 종합한 의서이다.

『本草綱目』은 藥物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므로 『廣濟秘笈』의 목차와는 상관성이 없다. 그러나 『本草綱目』에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廣濟秘笈』 전권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용되어 있다. 특히 4권 향약에 관한 내용은 기재약물수가 총 50종인데, 그중 『本草綱目』이 인용되지 않은 항목은 단 1개의 항목뿐이며, 『本草綱目』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 43종이나 된다.

3.1.4. 『廣濟秘笈』과 『鄉藥救急方』과의 관계(목차를 중심으로)

『廣濟秘笈』과 『鄉藥救急方』과의 연관성은 『壽世保元』이나 『東醫寶鑑』과의 관계처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서, 『廣濟秘笈』의 저자인 李景華가 『鄉藥救急方』을 참고하였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鄉藥救急方』과 『廣濟秘笈』이 민간인을 위하여 지은 책이라는 점과 首篇에서 救急에 관한 질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鄉藥救急方』의 상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⁴³⁾ 대부분을 『廣濟秘笈』 1권에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음식중독과 벌레에 물린 것, 목매달아 죽은 것 등을 책의 首篇에서 다루고 있는 점은 『鄉藥救急方』과 『廣濟秘笈』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以上은 『廣濟秘笈』과 다른 의서들과의 상관성에 대해 목차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즉 목차의

43) 鄉藥救急方의 上卷目錄: 食毒, 肉毒, 菌毒, 百藥毒, 螫咬毒, 骨變方, 食噎方, 卒死, 自縊死, 理熱喝死, 落水死, 中酒欲死方, 斷西方, 墮損, 壓痺, 傷折, 打破, 金瘡, 喉痺, 重舌, 口瘡, 曲蛆醫

전체적인 대강은 公正현의 『壽世保元』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세부항목을 정하는 데는 허준의 『東醫寶鑑』을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3.2. 『廣濟秘笈』의 인용서적

3.2.1. 『廣濟秘笈』의 引據諸書

저자는 책의 첫머리에 『引據諸書』⁴⁴⁾라고 하여 『廣濟秘笈』을 쓰면서 참고한 서적들을 열거하고 그 아래 간략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들은 대개 책과 저자를 소개하는 글들이다.

인거제서에 나와있는 의서는 총 71종이며, 중국의 서(62종)를 시대순으로 먼저 기술하고 그 뒤에 조선 의서(8종)를 나열하였다. 그리고 조선 의서 마지막에 청나라 의서(1종)를 덧붙였다.

◆ 중국의서

중국의서는 다음과 같이 63종이다.

難經, 倉公方, 金匱玉函經, 內照圖, 甲乙經, 肘后方, 小兒方, 鬼遺方, 金匱真言, 外臺秘要, 千金方, 食療本草, 四聲本草, 天寶單方圖, 傳信方, 兵部手集, 海上方, 資生經, 聖惠方, 備用本草, 神應經, 銅人經, 活人書, 救三死方, 仇池筆記, 夷堅志, 陰騭方, 三因方, 續傳信方, 小兒方, 直指方, 扶壽方, 原病式, 六門三法, 得效方, 丹溪心法, 日用本草, 山居四要, 東垣十書, 易簡方, 澹寮方, 試效方, 家寶方, 產寶方, 瑞竹堂方, 體仁彙編, 婦人良方, 外科備要, 備急方, 保壽堂經驗方, 指迷方, 顏真堂經驗方, 子母秘錄, 博濟方, 醫通, 鍼灸大成, 奇疾方, 百一選方, 積善堂經驗方, 玉機微義, 袖珍方, 烟霞聖效方, 三元延壽書, 萬病回春, 壽世保元, 種杏仙方, 普渡慈航, 人蔘傳, 本草綱目, 醫學入門, 醫學正傳, 經驗纂要, 黃氏經驗方⁴⁵⁾

44) 李景華, 上揭書, pp. 23 - 30

45) 黃氏經驗方은 朝鮮醫書 8종을 기술한 다음에 나온다. 청나라 의서이므로 편의상 中國醫書에 붙여 설명한다.

◆ 조선의서

조선의서는 鄉藥集成方, 救急方, 東醫寶鑑, 東人經驗方, 東醫聞見方, 李碩幹方, 醫林撮要, 許任方으로 총8권이다.

『廣濟秘笈』에서 인용서적을 나열하고 저자의 설명을 붙이는 방식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과 유사하다. 물론 중국의서에도 이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의서들이 있으나 『東醫寶鑑』과 『廣濟秘

笈』의 판본을 비교하여보면 글쓰는 형식을 『東醫寶鑑』에서 빌어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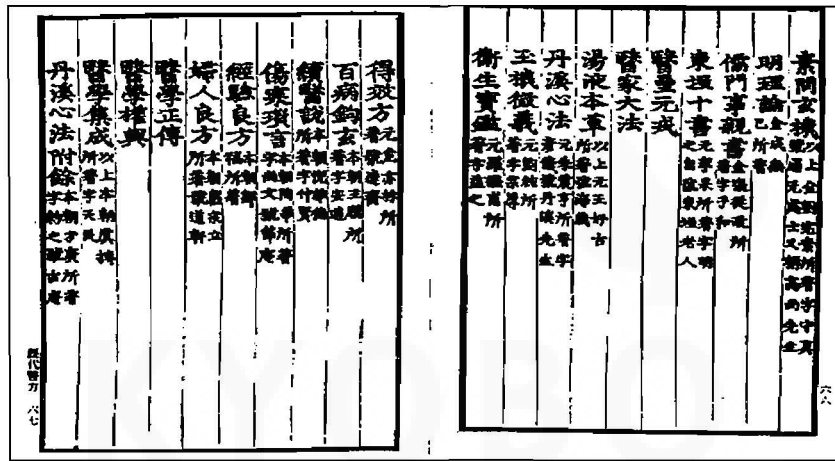


그림 1 東醫寶鑑의 歷代醫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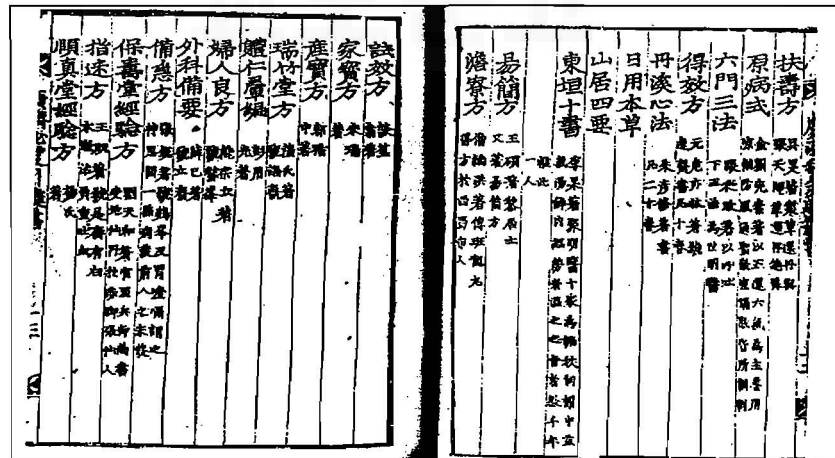


그림 2 廣濟秘笈의 引據諸書

그러나 동일한 서적에 대해서 『東醫寶鑑』과 『廣濟秘笈』은 전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아, 『東醫寶鑑』에서는 글쓰는 형식만을 빌어온 것이며 내용은 李景華가 임의대로 썼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東醫寶鑑』의 '歷代醫方'과 『廣濟秘笈』 '引據諸書'의 다른점은 그 내용이 『東醫寶鑑』은 저자와 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에 그치는 대신, 『廣濟秘笈』에서는 설명이 보다 풍부하다는 점이다. 『廣濟秘笈』의 '引據諸書'와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서 중복된 의서는 모두 26종이며, 그중 저자의 설명이 분명히 다른 몇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앞서 밝혔듯이 『廣濟秘笈』의 '引據諸書'는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을 참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歷代醫方'의 내용도 아울러 보았을 것인데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경우는 전연 『東醫寶鑑』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있다. 오히려 『難經』에 대한 양자의 설명을 비교하여보면, 李景華의 설명은 허준의 설명에 반박이라도 하는 듯한 내용이며, 『醫林撮要』에 관해서는 『東醫寶鑑』에서 정경선의 저작이며 양예수가 교정을 하였다고 하였는데도, 李景華는 『醫林撮要』가 양예수의 저작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다. 『醫林撮要』가 정경선의 저작인지 양예수의 저작인지에 관해서 박46)은 정경선의 저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한편 『萬病回春』(1587年, 龔廷賢撰)에 대해서는 허준은 『萬病回春』이 『古今醫鑑』과 더불어 龔信의 저작이라고 밝히고 있고 李景華는 『萬病回春』을 龔廷賢의 저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신과 공정현은 부자사이로 『古今醫鑑』은 공신이 저술하기 시작하여 그의 아들이 완성한 것이니, 공신의 저서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萬病回春』은 공정현 저작이 분명하며, 그의 아버지 공신과는 관계없는 의서이다. 이는 허준이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廣濟秘笈』 '引據諸書'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요약하면 『廣濟秘笈』의 '引據諸書'는 『東醫寶鑑』의 '歷代醫方'에서 글 쓰는 형식을 빌어온 것이며 그 내용은 李景華가 임의대로 기록한 것이다. '引據諸書'에 나온 서적에 대한 저자의 설명만을 보더라도 李景華는 의학의 古經에서부터 당시 최신의학이라고 알려졌던 明代의가들의 서적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으며, 朝鮮醫家들의 의서에 대한 인식 또한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難經과 東垣十書

	東醫寶鑑	廣濟秘笈
難經	戰國時代 扁鵲의 저서이다. 姓은 秦이고 이름은 越人이며 號는 扁鵲이다.	81편으로 되어있고 秦越人의 저작이다. 후세사람들이 그 법을 많이 썼다. 扁鵲方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마음대로 가져다 붙인 이름이다
神應經	宋代 許希의 저서이다.	許叔微의 저서로 總 五卷이며 鍼灸를 위주로 한 책이다.
萬病回春	明代 龔信의 저서이다.	龔廷賢의 저서로 공정현의 호는 운림이며 서원군의 아들이다.
醫林撮要	우리나라의 內醫인 鄭敬善이 지었고 楊禮壽가 교정하였다.	楊禮壽의 저서이며 楊禮壽의 號는 退思翁이다. 책은 모두 12권이다.

표 1 東醫寶鑑과 廣濟秘笈중 저자의 견해가 다른 의서 비교

46) 朴贊國, 東洋醫學誌, 16권, 2호, p8.

에 대한 저자의 설명⁴⁷⁾을 보면 醫經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의학이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引據諸書'에서 밝힌 李景華의 설명이 순수한 자신의 견해인지 아니면 다른 의가의 표현을 빌어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醫書 및 經書에 대해 저자의 독서량이 많았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3.2.2. 『廣濟秘笈』 본문에 표기된 인용서적

◆ 본문에 표기된 인용서적 목록

1권부터 3권까지의 인용서적을 빈도수로 나열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4권은 『本草綱目』의 2차 인용서적이므로 인용서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諸方 166회, 經驗 125회, 本草綱目 119회(時珍 4회 포함), 歷驗(저자 자신의 경험) 87회, 東醫寶鑑 80회, 醫學入門 61회, 萬病回春 49회, 東醫聞見方 42회, 本草 33회, 壽世保元 19회, 得效方 18회, 丹溪 18회, 針灸 17회, 內經 15회, 直指方 14회, 千金方 13회, 俗方 12회, 十藥神書 9회, 許任方 8회, 外臺秘要 7회, 醫鑑 7회, 救急方 6회, 體仁 6회, 聖惠方 6회, 仲景 5회, 東垣 5회, 奇疾方 5회, 鍼灸大成 5회, 肘后方 4회, 良方 4회, 類聚 4회 (3회이하로 표기된 인용서적은 생략한다.)

여기서 '인용서적'이라 함은 본문설명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출전을 밝힌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양식을 가진 조선의서는 『鄉藥集成方』, 『醫林撮要』, 『東醫寶鑑』, 『濟衆新編』 등이다. 각기 표기하는 형식은 조금씩 다른데 주로 처방이나 치료법 등을 설명하면서 설명의 앞이나 뒤에 표기하였다.

『廣濟秘笈』 본문에 표시된 인용서적은 저자가

47) 難經 : 표1 참조

東垣十書 : 李杲著 聚名醫十家爲編 秋制補中益氣湯 解內經 勞者溫之之旨者 數千年惟此一人 - 이고의 저서이다. 이름난 의가의 책 10종을 모아 만든 것이다. 보중익기탕을 만들었는데 내경의 "勞者溫之"라는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수천년동안 이 한사람뿐이었다.

'引據諸書'에 나열한 것보다 훨씬 많다. 총 150여종인데 『廣濟秘笈』이 지어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였을때, 그 많은 인용서적을 모두 참고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 그외에도 같은 의서를 표기하는데 著者と 書名을 혼용하고 있고, 또한 인용서적이라고 표시된 것들중 널리 알려진 의서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인용서적표기의 기준이 무분별한 것으로 보아 이들 대부분은 2차인용일 가능성이 많다. 실제로 『廣濟秘笈』 4권은 『本草綱目』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本草綱目』의 인용서적표기까지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서적들이 모두 2차 인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중에 李景華가 직접 참고한 의서들을 가려내어 보기로 하겠다.

3.2.3. 『廣濟秘笈』의 실제인용서적

『廣濟秘笈』에서 저자가 실제로 가장 많이 인용하고 참고한 의서는 『東醫寶鑑』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인용서적표기에 '諸方'이라고 표기된 부분이 166군데이며, 그 내용은 실제로 『東醫寶鑑』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東醫寶鑑』이라고 인용서적이 표기된 곳이 80군데이므로 인용횟수면에서 『東醫寶鑑』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 ㉡ 『東醫寶鑑』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寶鑑寒門', '寶鑑風門', '方見寶鑑大便' 등으로 구체적인 편명까지 인용하였다.
- ㉢ 앞서서도 밝혔듯이 『廣濟秘笈』의 세부항목은 『東醫寶鑑』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는데 세부항목은 내용을 기술할 때 직접관계되는 것이므로 내용도 상당부분 『東醫寶鑑』을 직접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本草綱目』⁴⁸⁾과 『壽世保元』을 들 수 있다. 『廣濟秘笈』의 4권인 향약처럼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두 『本草綱目』과 『壽世保元』의 내용을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는 범례에서 李景華가 『本草綱目』과 『壽世保元』을 참조한다고 밝힌 사항이다. 그리고 『壽世保元』은 『東醫寶鑑』과 더불어 『廣濟秘笈』의 편제를 구성할 때 李景華가 저본으로 삼은 것이므로 저자가 직접 참고한 의서라 할 수 있다. 또한 본문에서도 『東醫寶鑑』과 『壽世保元』, 『本草綱目』은 ‘寶鑑寒門’, ‘保元風門’, ‘綱目鹿茸條’식으로 구체적인 세부 항목까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자주 보인다. 이외에 인거제서의 목록에도 포함이 되어있고 인용회수도 많은 『萬病回春』, 『醫學入門』, 『東醫聞見方』 등의 의서들도 직접 참고하였다.

3.3. 『廣濟秘笈』에 영향을 미친 의서는 『東醫寶鑑』, 『壽世保元』, 『本草綱目』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廣濟秘笈』의 목차와 인용서적을 중심으로 본서가 어떤 의서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요약하면 『廣濟秘笈』 목차의 큰 틀은 공정현의 『壽世保元』의 형식을 빌어와서, 그 위에 저자가 독창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정하는 데는 허준의 『東醫寶鑑』을 많이 참조하였으며, 실제 내용도 『東醫寶鑑』을 인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이시진의 『本草綱目』의 내용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으며, 『萬病回春』, 『醫學入門』 등의 의서들도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廣濟秘笈』은 『東醫寶鑑』을 기본토대로 하여 쓰여졌는데, 이는 당시 조선의학의 경향

을 반영하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東醫寶鑑』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험하며, 임상경험을 축적해가는 과정으로 말할 수 있다. 『廣濟秘笈』과 동시대에 저술된 『濟衆新編』⁴⁹⁾과 『壽民妙詮』⁵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廣濟秘笈』도 그러한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廣濟秘笈』이 『東醫寶鑑』을 토대로 하면서도 목차의 대강을 『壽世保元』에서 참조한 이유는 『東醫寶鑑』보다는 『壽世保元』의 목차가 자신이 의서를 쓰고자 하는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즉 李景華가 『廣濟秘笈』을 지을 때 우선하였던 것은 ‘급할 때 찾아보기 쉽게 한다’⁵¹⁾는 것이었으므로, 內景, 外形, 雜病, 婦人, 小兒 등의 순서로 되어있고 다시 內景은 精, 氣, 神, 血 등의 순서로 되어 있는 『東醫寶鑑』보다는, 救急疾患, 雜病, 婦人, 小兒 등의 목차로 되어있는 『壽世保元』이 찾아보는데 더 쉽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리하여 『壽世保元』에서 목차의 대강을 따왔다.

앞서도 밝혔듯이 『廣濟秘笈』은 『東醫寶鑑』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廣濟秘笈』은 그에 더하여 『壽世保元』과 『本草綱目』의 내용도 아

49) 濟衆新編 : 正祖23년에 御醫 康命吉이 지은 것으로 내용과 목차는 『壽世保元』과 『東醫寶鑑』을 참고로 하여 지어졌다. 각 항목을 설명할 때 맨먼저 ‘脈法’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壽世保元』의 설명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세부항목의 편제는 『東醫寶鑑』의 설명방식을 따르고 있다.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壽世保元』과 『東醫寶鑑』을 적절히 혼용하고 있으며, 처방에 있어서는 대부분 『東醫寶鑑』 처방을 사용하고 있다.

50) 壽民妙詮 : 正祖가 직접 지은 것으로 『東醫寶鑑』중에서 처방과 치료에 관한 것을 제외한 병의 요점만을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목차는 『東醫寶鑑』과 일치하며, 내용은 『東醫寶鑑』의 설명중에서 앞부분의 핵심이 될만한 몇구절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51) 李景華, 上揭書, p. 31 “凡醫書編秩浩繁 方文汗漫 非平日熟讀者 臨急檢 方多有未及之歎 千金方序云 方才檢 得病已不救 徵其言 分類方於考閱云” - 여러의서들은 편집된 것이 복잡하고 방문들도 많아 평소에 많이 읽어두지 않으면 병에 닥쳤을 때 미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처방을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

48) 本草綱目 : 본초강목은 총52권의 방대한 서적으로 1590년에 간행되었다. 明代 李時珍의 저술로 중국 漢代 『神農本草經』 이래의 本草學에 대한 성과를 종합한 의서이다.

울러 수용하고 있다. 『壽世保元』은 공정현이 자신의 저서인 『萬病回春』을 좀더 체계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중국의 辨證論治醫學의 성과를 더욱 가다듬은 의서이고, 『本草綱目』은 중국 역대의 本草學의 성과를 총괄한 서적이다. 즉 『壽世保元』과 『本草綱目』은 당시 중국의학을 대표하는 의서였는데, 李景華는 중국의학을 한국화한 『東醫寶鑑』을 토대로 당시 중국의 첨단의학을 받아들이고 있다.

4. 『廣濟秘笈』에 나온 鄉藥

鄉藥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말하는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약을 唐藥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우리나라 약의 총칭을 말한다.⁵²⁾ 우리나라에서 향약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두된 것은 고려중기에서 조선초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저술된 의서들로는 『鄉藥救急方』, 『鄉藥故方』, 『三和子鄉藥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簡易方』, 『鄉藥濟生集成方』, 『東人經驗方』, 『鄉藥集成方』 등을 들 수 있으며,⁵³⁾ 모두 '鄉藥'이나 '東人'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보아도 당시에 국산약재연구에 대한 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 세종때에 이르러서는 『鄉藥採取月令』을 편찬하는 등 국가적으로 국산약재개발을 육성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후에 『東醫寶鑑』에서는 湯液編에서 약물을 분류하고 性味와 主治效能을 기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향약명을 아울러 기재함으로써 조선사람들이 중국약재명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廣濟秘笈』에서는 마지막 4권을 '鄉藥單方治驗'

이라하여 자국산 약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4권의 편집취지는 범례에 나오는데 '『本草綱目』과 『壽世保元』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 49종을 골라 주치와 복용법 등을 자세히 적어 궁벽한 곳의 촌부라도 구별하여 쓸 수 있게 하였다'⁵⁴⁾ 하였다. 『廣濟秘笈』의 4권에 나와있는 향약은 49종이라고 했으나 실제 내용에는 목차에 없는 白芷가 추가되어 50종이다. 목차에는 약재명 아래에 당시 통용되는 향약명을 기록하였다. 55) 본문의 향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李景華가 범례에서 밝힌 것처럼 모두 『本草綱目』과 『壽世保元』에서 인용한 것이며 『本草綱目』에서는 '發明'과 '附方'⁵⁶⁾에서 인용서적표기까지 모두 인용하였다. 『壽世保元』에서는 단방치료법이 '單方雜治'라 하여 마지막 10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약물의 숫자가 총 8종이다. 『廣濟秘笈』에서는 이중 蘿蔔을 제외한 7종의 약물설명을 인용하였다. 『壽世保元』에서 인용한 약물의 경우에는 그 순서가 『壽世保元』에 나와있는 약물순서와 동일하다.

약재명	향약명	내용출전
人蔘	인삼	『本草綱目』
當歸	승암초	『本草綱目』
黃柏	황경거름	『本草綱目』
大豆	굴근콩	『本草綱目』
小豆	불근조근	『本草綱目』
馬齒莧	쇠비름	『本草綱目』
香附子	사초썩이	『本草綱目』
大黃	장군풀	『本草綱目』
絲瓜	수세외	『本草綱目』
冬瓜	동화	『本草綱目』
葳靈仙	어아리풀(어아리불이)	『本草綱目』

54) 李景華, 上揭書, p. 31 "窮鄉僻邑 無藥 救急 考閱綱目本草 及 保元諸方 以人家尋常 易得之料 四拾九種 書名謄釋主治服法 并并畢俱 使村人鄙夫 臨病 判用以爲備急之一助云"

55) 李景華, 上揭書, pp21-22

56) 本草綱目的 약물을 설명하는 방식은 釋明, 集解, 發明, 附方 순으로 되어있다.

52) 金斗鍾, 上揭書, p206

53) 朴贊國, 조선전기의 의학(한국한의학사재정립 중), 한국한의학연구원, p244

忍冬	겨우사리	「本草綱目」
石菖蒲	돌밭떡난창포	「本草綱目」
蒲黃	부들종이꽃	「本草綱目」
浮萍	모시난부평	「本草綱目」
牡鼠屎	수쥐똥	「本草綱目」
頭垢	사람의머리서	「本草綱目」
人尿	사람의똥	「本草綱目」
人尿	스나의오줌	「本草綱目」
食鹽	먹는소금	「本草綱目」, 「壽世保元」
香油	참기름	「本草綱目」, 「壽世保元」
生薑	삼강	「本草綱目」, 「壽世保元」
葱白	파불의흰것	「本草綱目」, 「壽世保元」
大蒜	큰마늘	「壽世保元」
苦麥	쓴능암블이	「本草綱目」, 「壽世保元」
百草霜	속뭇히안즌검다이	「本草綱目」, 「壽世保元」
艾	쑤쑤	「本草綱目」
鼠黏子	왕씨	「本草綱目」
蒼耳	튀고리	「本草綱目」
蓖麻子	아죽가리씨	「本草綱目」
白礬	뽕번	「本草綱目」
荊芥	정개	「本草綱目」
蛇床子	쥐손풀	「本草綱目」
紫蘇葉	초석이입	「本草綱目」
杏仁	솔귀씨	「本草綱目」
桃仁	복슈와씨	「本草綱目」
井華水	움물의물	「本草綱目」
白沸湯	여러번쓰린물	「本草綱目」
黃土	늘은흙	「本草綱目」
地龍屎	지렁이의똥	「本草綱目」
伏龍肝	가마뱀바로그피피고불근흙	「本草綱目」
麻子	삼씨	「本草綱目」
亂髮	머리숯쑤온것	「本草綱目」
竹瀝	참대기름	「本草綱目」
田螺	우렁이	「本草綱目」
梁上塵	붓장우의문주	「本草綱目」
皂角	당쥐염여름	「本草綱目」
韭菜	부취	「本草綱目」
白芷		「本草綱目」

을 따로 기술하고 있는 경우는 『東醫寶鑑』뿐만아
 니라 동시대의서인 『濟衆新編』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에서는 약물의
 性味와 效能를 중시하여 기술하고있는 반면에, 『廣
 濟秘笈』에서는 適應症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의서이면서 단방약물에 대하여 따로 기
 술하고 있는 경우를 중국의서에서 찾아보면 『醫學入
 門』과 『壽世保元』을 들 수 있다. 『醫學入
 門』에서는 약물의 성미와 효능을 중심으로 기술하
 고 있고 『壽世保元』에서는 적응증을 중심으로 서
 술하고 있다. 李景華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壽世保元』의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에서는 중
 국수입약제도 아울러 기재하고 있는 반면 『廣濟秘
 笈』에서는 오직 향약만을 기재하고 있다는 점도 특
 이하다. 이는 『廣濟秘笈』이 궁촌벽지의 일반인들
 을 대상으로 지어졌으므로 흔히 구할 수 있는 향약
 들만을 골라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廣濟秘笈』과 같은 종합의서에서 단방치료법

맺음말

이상 『廣濟秘笈』의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廣濟秘笈』의 성립과정 :

본서는 正祖14년 즉 1790년에, 그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李秉模의 주선으로 평안도 成川의 의사인 李景華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만에 쓴 의학서적이다.

둘째 『廣濟秘笈』의 著者 :

『廣濟秘笈』의 저자는 李景華이다. 이에 대해서 현대사가들은 宋時烈의 門人이었던 李景華와 혼동하고 있으나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와 『廣濟秘笈』을 지은 李景華와는 同名異人이다. 『廣濟秘笈』을 지은 李景華는 1720년경에 평안도 成川에서 태어났다. 처음에는 관직에 나가기 위하여 유학을 공부하였고 진사시험에까지 합격하였으나 서북지방인들에 대한 차별에 회의를 느끼고 그 이후로는 의학에 전념하였다. 후에 명의로 이름이 나서 당시 함경도 관찰사로 있던 李秉模의 부탁을 받고 1790년에 『廣濟秘笈』을 저술하게 되었다.

셋째 『廣濟秘笈』에 영향을 미친 의서 :

本書는 許浚의 『東醫寶鑑』과 龔廷賢의 『壽世保元』, 李時珍의 『本草綱目』 등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넷째 『廣濟秘笈』에 나온 『鄉藥』

李景華는 마지막권에 향약에 대한 치험례를 따로 기록하여, 고려중기부터 이어져오던 국산약재개발의 맥을 잇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본고에서 『廣濟秘笈』에 대한 몇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본고에서 빠진 내용이 몇가지 있다.

첫째, 『廣濟秘笈』의 醫學的인 내용에 대한 분석이다. 『廣濟秘笈』은 『東醫寶鑑』이 지어진지 180년뒤에 지어진 의서로, 비록 『東醫寶鑑』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東醫寶鑑』이 지어질 당시에는 없었던 『壽世保元』과 『本草綱目』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등 『濟衆新編』이나 『壽民妙詮』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廣濟秘笈』은 『東醫寶鑑』의 전통을 어떻게 잇고 있으며 중국의 의학을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東醫寶鑑』을 지은 허준이나 『濟衆新編』을 지은 강명길의 중앙정부의 의사였던 반면 李景華는 지방의 의사로서 민간인들을 직접 대하며 의료기술을 쌓은 의사이다. 따라서 『廣濟秘笈』의 의학적인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당시 민간에서 정작 필요한 의학적인 처치가 어떠한 것들이었으며, 당시 질병의 양상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李景華의 의학에 대한 이해와 임상의 수준도 아울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것은, 필자의 古書에 대한 안목과 의학에 대한 개념이 아직 本書의 의학적인 특징을 충분히 밝혀내기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또 하나 부족한 점은 『廣濟秘笈』을 지은 李景華에 대한 행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宋時烈의 門人이었던 李景華에 문려 醫師로서의 李景華가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 '宋時烈의 門人인 李景華는 『廣濟秘笈』을 지은 李景華와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廣濟秘笈』을 지었으며, 그 당시 이복일대에 이름을 날릴 정도였던 醫師 李景華가 역사속에서 좀더 빛을 받기 위해서는 그의 자세한 행적을 밝혀야 한다.

參考文獻

古書類

1. 李景華, 廣濟秘笈, 한국의학대계 16권, 서울, 여강출판사
2. 俞孝通 外, 鄉藥集成方, 한국의학대계 4~7권, 서울, 여강출판사
3. 楊禮壽, 醫林撮要, 한국의학대계 8~10권, 서울, 여강출판사
4. 康命吉, 濟家新編, 한국의학대계 18권, 서울, 여강출판사
5. 正祖, 壽民妙詮, 한국의학대계 17권, 서울, 여강출판사
6. 許浚, 東醫寶鑑, 서울, 연합의서
7. 肅宗實錄
8. 振威李氏世譜
9. 韓國學文獻研究所, 平安道邑誌 全國地理誌, 韓國地理誌叢書, 서울
10. 韓國學文獻研究所, 關西邑誌 全國地理誌, 韓國地理誌叢書, 서울
11. 李景華 外, 楓溪集
12. 龔廷賢, 萬病回春
13. 龔廷賢, 壽世保元
14. 李時珍, 本草綱目
15. 李梴, 醫學入門
16. 虞搏, 醫學正傳

單行本類

1. 金斗鍾,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82
3. 金信根, 韓醫藥書巧,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4. 이경화, 광제비급, 국역동의고전총서, 서울, 여강출판사, 1994
5. 陶御風 外, 歷代筆記醫事別錄, 천진과학기술출판사, 천진
6. 천진중의학원, 中醫學解難, 천진과학기술출판사, 천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譯註經國大典, 주해편
8. 이은상, 鷲山文選, 영창서관, 서울

論文類

1. 朴贊國, 醫林撮要의 한국의사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東洋醫學誌 16권 2호, 동양의학연구원, 1990
2. 朴贊國, 朝鮮前期의 醫學(韓國醫學史再定立 中), 韓國韓醫學研究所
3. 朴贊國, 東醫學의 成立에 대한 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5권
4.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4
5. 鄭勉, 鄉藥集成方 編纂에 대한 小考, 대한원전의사학회지 5권
6. 허진, 許浚의 생애와 東醫寶鑑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5
7. 김정제, 「東醫寶鑑」의 서지학적 고찰, 구암학보
8. 김홍균, 朝鮮中期醫學의 系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